

2013년 8월 18일 - 주일 메시지
<전도자의 삶 - 위기 만난 인생, 어떻게 해야 하나?>
(왕하 20:1-7)

[서론]

(1) 행 27 장에 보면, 잔잔하던 바다에 유라굴로 라는 광풍이 불어 닥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

① 이 유라굴로 광풍은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에 불어 닥치는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.

② 성경은 이 태풍을 “광풍”이라고 표현했습니다.

-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.

(어떤 성경학자는 표현하기를 미친 돌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.)

③ 배에 탄 276 명의 사람들이 꿈쩍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.

- 살기 위해 모든 지니고 있었던 재산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.

그러나, “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”고 했습니다.

④ 배가 떠날때만해도 누가 이 미친 바람이 불어올 줄 알았을까요?

(2)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속에도 위기가 찾아 올때가 있습니다.

-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.

① 가정 안에도- 부부간에, 부모 자식간에

② 사업속에도- 잘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 무너질때가 있습니다.

③ 건강에도

④ 인간관계속에도- 어제까지도 그렇게 잘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원수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.

(3) 이렇게 찾아온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, 이겨낼 수 있을까요?

[본론]

1. 오늘 본문에 보면, 위대한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도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.

(1)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3대 성군중의 한명 입니다.

- 다윗, 요시아, 히스기야.

(2)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

① 산당제거- 우상들을 정리 했습니다.

② 낫뱀을 제거 했습니다. - 모세 이후로 하나님으로 섬겨 왔던 낫뱀을 부수어 버리고 “느후스단”이라 불렀습니다.

(낫조각에 불과하다는것)

③ 유월절을 회복 시켰습니다.

④ 또 정치, 문화, 경제를 개혁했습니다.

⑤ 그야 말로 신앙의 사람ियो, 믿음의 사람ियो,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.

(3)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.

① 왕하 20:1

- “병들어 죽게 되었다고” 했습니다.

“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”고 했습니다.

②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던 히스기야 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.

③ 만일 이러한 위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

2. 과연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, 이겨냈을까요?

(1) “낮을 벽으로 향했다”고 했습니다.

(왕하 20:2)

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?

-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말입니다.

② 사람도, 세상도, 환경도 의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.

③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, 이것저것 많이 쳐다보고 의지합니다.

- “누가 나를 도와 주지는 않을까”

④ 그런데 이것도 착각입니다.

-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떠나갑니다.

(탕자 비유)

⑤ 시 146:3, “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,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”고 했습니다.

⑥ 아람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 쓸 때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“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도우랴”

(2) “심히 통곡하였더라” (왕하 20:3)

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.

② 자존심도, 체면도, 위신도 버렸다는 말입니다.

- “죽게 되었는데”

(3) 언약 잡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.

① 이 사실을 아십니까?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

② 이때 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.

(왕하 21:1)

- 메시아의 언약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.

③ 이 사실을 두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도를 했습니다. (마 1:1)

[결론]

(1)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,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 올 때가 있습니다.

-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.

(2) 이때 당황하지 말고,

(3) 히스기야 처럼 하나님께 엎드립시다.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.